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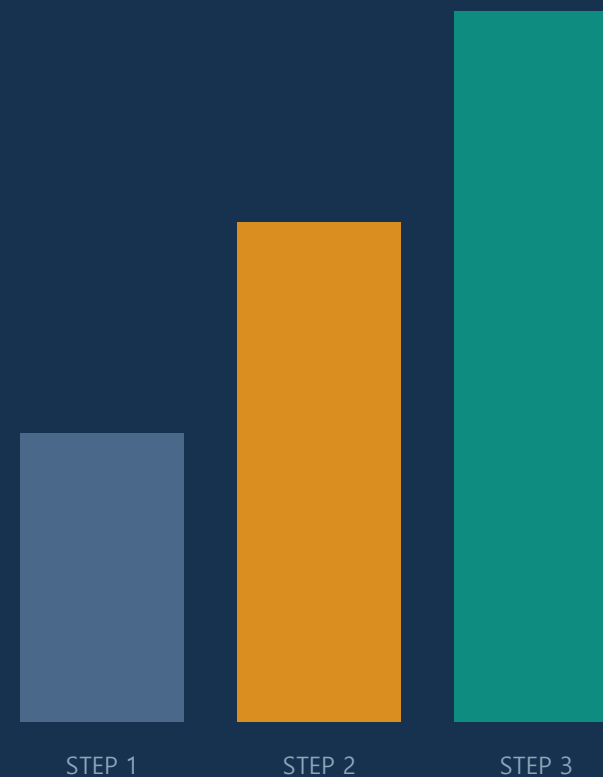
부산형 RISE 직업·평생교육 거점과제(B-LiFE) 관계기관 토론회

데이터로 본 부산 직업·평생교육의 현황 진단과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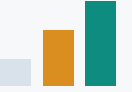
— 6,080건 전수조사와 시민·기업 설문으로 확보한, 교과과정·플랫폼 구축의 데이터 기반 —

2026. 7. 23.

발표 (주)케이비즈업



발표 흐름



01

추진 배경

부산의 여건 변화와
통합 현황 자료의 부재

02

전수조사

43개 기관 6,080건 DB
+ 시민 203명·HR 20명 설
문

03

분류체계

B-Ladder 6대 역량군
× 3단계(STEP)

04

공급-수요 갭

이중 불균형 진단과
개발 우선순위

05

방향·제언

개발 방향 요약과 제언
— 상세는 발표 ②에서

본 발표는 결과보고서(2026. 7.)·시민 수요 실태조사(유효 203명)·HR담당자 조사(20명)를 토대로 구성 — 두 추진 과제의 사전작업 결과 보고

추진 배경 ① — 부산의 여건 변화



23.0%

65세 이상 인구 비율

광역시 중 최고 · 초고령사회
(통계청, 2024.3)

0.490

인구 소멸위험지수

소멸위험 진입(0.5 미만)
(한국고용정보원, 2024.6)

77.3%

서비스업 중심 산업구조

제조업 17.2% · 디지털 전환 압력
(KOTRA InvestKOREA)

16위

1인당 GRDP 전국 순위

3,476만 원 · 최하위권(2023)
(통계청)

여건 변화가 평생교육에 요구하는 것

- 생애전환기 학습·재교육 수요 확대 — 고령층 디지털 격차 해소와 신중년 재교육의 균형 있는 공급 필요
- 산업 전환에 따른 재직자 역량 고도화·직무 전환 교육 수요 증가 — 교양 중심 공급 구조의 재점검 필요
- 재취업·이직·창업 등 경력전환 수요 증가 — 기초에서 심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경로 설계 필요

추진 배경 ② — 통합 현황 자료의 부재, 그리고 과업 목적



착수 시점의 문제 상황

- 부산 평생교육은 16개 구·군, 대학, 진흥원 등 다양한 주체가 운영 — 강좌 정보가 산재하고 분류 기준이 없음
- 43개 기관의 강좌 운영 현황을 통합 집계한 자료가 어느 기관에도 부재
- 중복·공백 영역 진단과 B-Ladder(성장 사다리) 설계의 근거 데이터 자체가 없는 상태

“현황을 모르면 사다리를 설계할 수 없다” — 전수조사가 모든 후속 과업의 출발점

과업 목적 (과업지시서 기준)

1

공급 진단

부산 전역 기관의 강좌를 전수 조사하고, 비교 가능한 표준 분류 체계로 통합 인벤토리 구축

2

수요 분석

공식 통계와 시민(203명)·기업 HR(20명) 직접 설문으로 수요·장벽 요인을 진단

3

매핑·활용

공급·수요 매핑으로 B-LiFE 플랫폼 고도화 근거 확보, B-Ladder 설계·인증 기준 수립에 활용

조사 설계 — 무엇을, 어떻게 조사했는가



조사 대상 — 43개 기관

부산 평생교육포털(bigi.or.kr) 등록 기관 + 대학 평생교육원 + 시민대학

구청·군청 (평생교육)	16개	4,996건 · 82.2%
일반대·교육대	16개	819건 · 13.5%
전문대·직업전문학교	7개	84건 · 1.4%
사이버대학	2개	38건 · 0.6%
시민대학 (부산시 직영)	1개	109건 · 1.8%
평생학습관·센터	1개	34건 · 0.6%

합계 43개 기관 · 6,080건 | 조사 기간 2026. 4. 23~25 (기준일 4. 25)

+ 설문 — 시민 206명 수신(오픈서베이 166·리멤버 40) → 유효 203명(재직자 152·일반시민 51) ±6.9%p · HR담당자 20명 · 2026. 06~07

조사·분석 과정 — 5단계

- 자료 수집**
 포털 데이터 자동화 수집 + 43개 기관 홈페이지 직접 조사 + 시민대학 포털 조사
- 정제 · 통합 DB 구축**
 중복·오류 정제 후 부산 최초 통합 강좌 DB 6,080건 구축
- 귀납 분류**
 수집 데이터 귀납 그룹핑으로 6대 역량군 × 3단계(STEP) 분류체계 도출 · 전 강좌 분류
- 교차 분석**
 공급 분포 × 공식 통계 × 시민(n=203)·HR(n=20) 설문으로 공급·수요 갭 분석
- 검증 · 고도화**
 현재는 1차 잠정 분류 – 향후 이해 기관간 분류체계 논의 필요

※ 포털 미등재 기관(일부 민간 평생교육원·기업 사내교육)은 조사 범위 제외 — 대표성 한계는 결과보고서 표장에 명시

B-Ladder 분류체계 — 흩어진 분류를 하나의 표준으로



AS-IS 기관별 상이한 분류

기초문해·한글	학력보완·검정고시
직업능력향상	컴퓨터·IT
창업·취업	건강·의료
스포츠·체육	돌봄·복지
어학·외국어	문화·예술
요리·제과·미용	취미·공예·생활
인문교양·시민참여	성인기초·교양

분류 기준이 제각각 → 수요 분석·정책 비교 불가

귀납적
재분류



TO-BE B-Ladder 6대 역량군 × 3단계 = 18개 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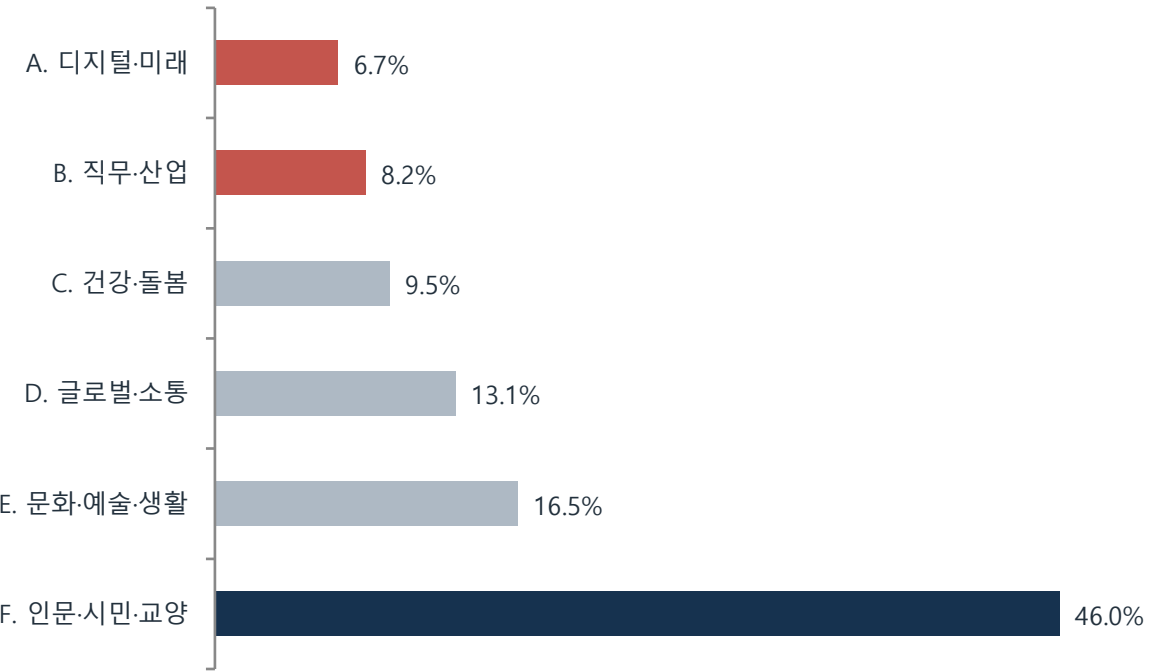
	STEP 1 BASIC	STEP 2 INTER	STEP 3 EXPERT
A. 디지털·미래역량			
B. 직무·산업역량			
C. 건강·돌봄역량			
D. 글로벌·소통역량			
E. 문화·예술·생활역량			
F. 인문·시민·교양역량			

6,080건 전 강좌를 학습 목적 기준으로 귀납 분류 — 역량군별 공급 비율 산출 가능

공급 진단 — 역량군 불균형과 끊어진 사다리



역량군별 공급 비율 — 수요와 역방향



단계(STEP)별 공급 — 기초 편중

STEP 3 전문·융합 254건 · 4.2%



STEP 2 심화·응용 664건 · 10.9%



STEP 1 기초·입문 5,162건 · 84.9%



전 역량군 공통의 기초 편중 — 학습자가 다음 단계로 올라갈 계단이 없음

구조적 발견 — 구청·군청 강좌가 82.2%(기장군 단독 27.4% 최다) · 대학·전문대는 15.5%에 불과 — 직업역량 과정 확충이 핵심 과제

수요 분석 ① — 공식 통계로 확인한 역량군별 수요 강도



A	디지털·미래	★★★★★ 높음	생성형 AI 경험률 33.3% (전년 대비 +15.7%p, 과기부·NIA 2024)
B	직무·산업	★★★★★ 높음	부산 직업능력향상 학습자 199,588명(49.1%) · 전국 참여분야 1위 · 4050 직무전환 희망 33.1%
C	건강·돌봄	★★★★ 중상	부산 고령인구 24.5% · 워크넷 부산 구인 1위 요양보호사 1,011건(2026.5)
D	글로벌·소통	★★★ 중간	AI 외국어 번역 활용 28.7% — 수요가 'AI+어학 융합'으로 재편 중
E	문화·예술·생활	★★★★ 중상	부산 문화예술 학습자 109,504명(27.0%) — 참여 규모 2위
F	인문·시민·교양	★★★ 중간	부산 학습자 66,057명(16.3%) — 공급 46.0%가 참여 비중을 크게 상회

판정 기준: 부산 직접 학습자 통계(교육부 2024 평생교육통계) 1차 기준, 부산 수치 미확보 역량군(A-D)은 전국 공식 통계로 보완 (한계 명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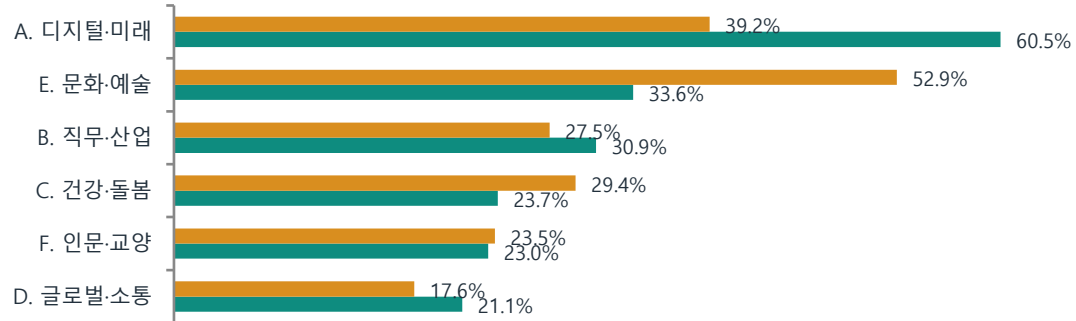
수요 분석 ② — 시민 203명이 직접 답한 수요



공식 통계(간접 자료)로 세운 가설을 시민 설문(직접 조사)이 같은 방향으로 실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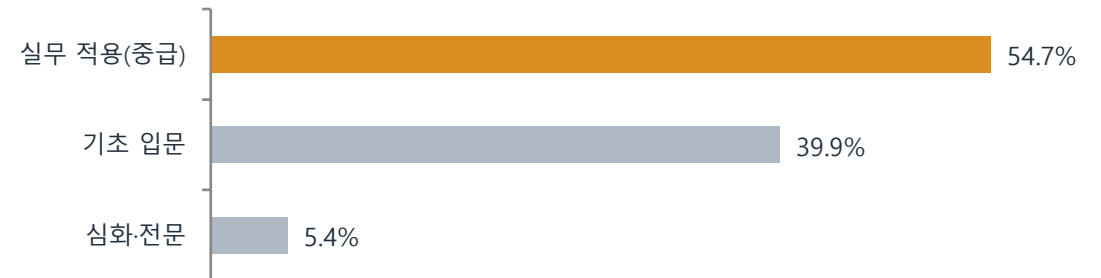
배우고 싶은 분야 (1+2순위 선택)

재직 A 60.5% vs 일반 E 52.9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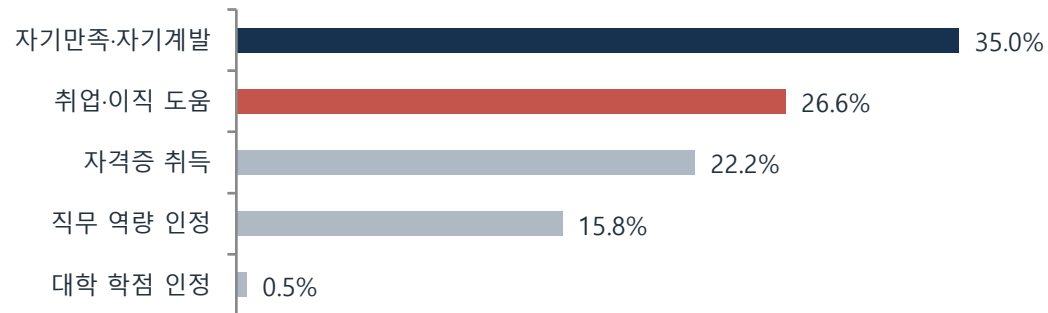
원하는 교육 수준

실무(중급) 과반 54.7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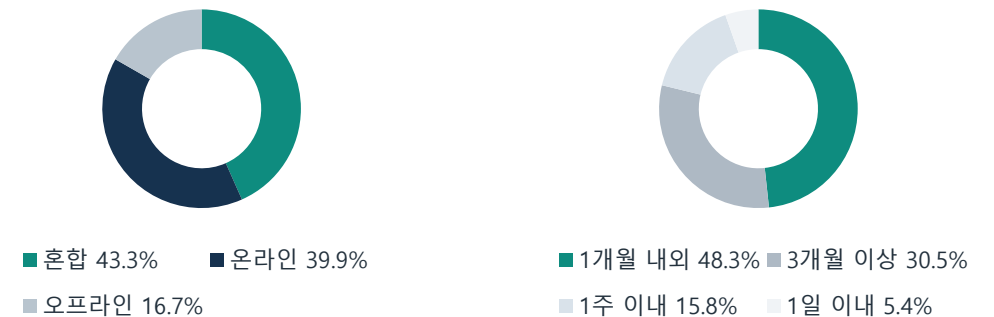
이수 후 원하는 결과

복수 트랙 설계 근거



선호 형태 · 기간

비대면 83.2% · 1개월 48.3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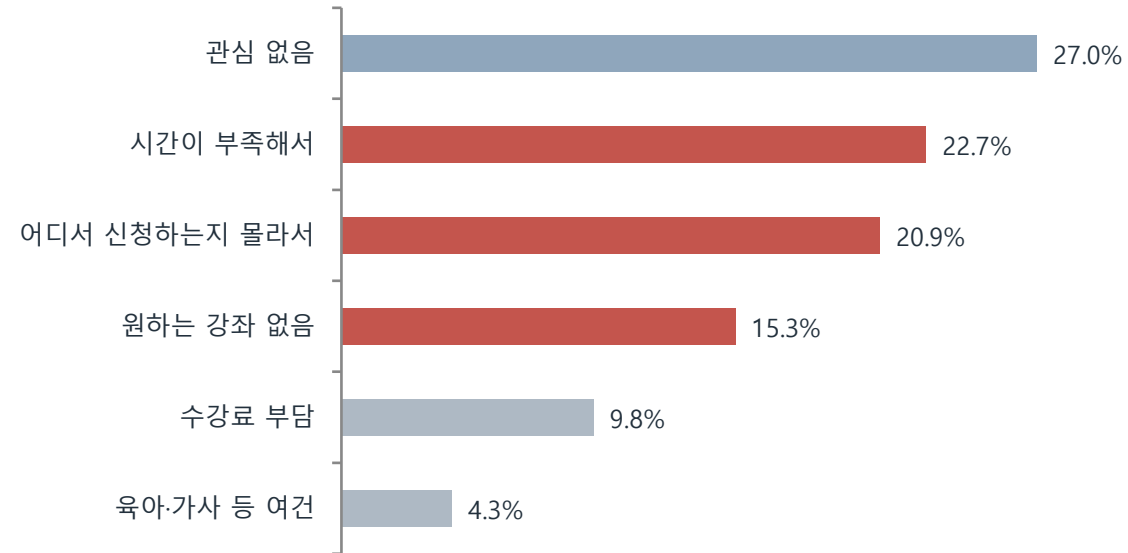
※ 부산시민 교육 수요 실태조사(오픈서베이·리멤버, 2026. 06~07, 유효 n=203 · 표본오차 ±6.9%p) · 분야는 1+2순위 합산 선택 비율

수요 분석 ③ — 참여를 가로막는 것과 여는 것

참여율 19.7%는 관심 부재가 아닌 접근성 문제 — 장벽이 걷히면 참여로 전환될 잠재 수요를 확인

왜 참여하지 않는가 — 미참여 이유 (n=163)

참여율 **19.7%**



■ 구조적 장벽(시간·신청방법·강좌 부재, 붉은 막대) 합산 58.9% — '관심 없음' 27.0%의 2배 이상

3.88점

참여 경험자의 도움 체감(5점)

일단 참여하면 효과를 체감 —
장벽 해소 시 실참여 전환 가능

36.5%

정보 경로 1위 '찾아본 적 없다'

정보에 노출조차 안 됨 — 추천·
안내형 전달(플랫폼)이 유일한 접점

3.59점

통합 플랫폼 이용 의향(5점)

정보 찾기 어려움 3.28점 상회 —
통합 검색·원스톱 신청 수요 실증

3.48점

이수 이력의 취업 도움 기대(5점)

인정 체계가 없는 지금도 기대 중간
이상 — B-Badge·RPL 수요 기반

※ 부산시민 교육 수요 실태조사(오픈서베이·리멤버, 2026. 06~07, 유효 n=203) · 도움 체감은 참여 경험자 40명 기준

수요 분석 ④ — 재직자와 일반시민은 다른 것을 원한다



세그먼트 교차분석 — 교육 목적·분야·장벽의 구조적 차이가 확인되어, 하나의 표준 설계로는 둘 다 놓침

	재직자 · n=152	일반시민(구직자·학생·주부) · n=51
희망 분야 1위	A. 디지털·미래 60.5% (전 연령 1위) <i>최우선 역량군이 정반대 — 세그먼트 특화 설계 필수</i>	E. 문화·예술 52.9% — 역전
원하는 수준 = 실무	52.0% <i>일반시민이 더 원함 — 기초 과정보다 현장 실습 중심으로</i>	62.7%
이수 목적 1위	자기만족·자기계발 38.2% <i>기대 효과가 정반대 — B-Badge 이원 트랙의 근거</i>	취업·이직 도움 47.1%
1위 참여 장벽	시간 부족 34.9% <i>처방이 다름 — 야간·혼합형 vs 온라인·거점 공급</i>	가까운 강좌 없음 37.3%
참여 가능 시간대	평일 야간 57.9% · 주말 48.7% <i>시간대 완전 역전 — 세그먼트별 운영 시간 이원화 필수</i>	평일 주간 72.5%

→ 설계 반영: B-Badge 이원 트랙(자기성장 인증 · 취업 연계) + 운영 이원화(재직자 야간·혼합형 / 일반시민 온라인·거점)

수요 분석 ⑤ — 기업(HR 담당자)이 원하는 것

부산 소재 기업 HR담당자 20명 조사(리멤버) — 시민 수요를 채용·인사 현장의 관점에서 교차 검증

85%

신입에게 부족한 역량 = B. 직무·산업

1+2순위 17/20 · '취업 전 미리 배워야 할 분야'도 B역량군 80%로 1위

70%

재직자에게 부족한 역량 = A. 디지털

'재직자에게 받게 하고 싶은 교육'도 A역량군 85% — 시민 수요와 수렴

70·60·60%

실무 중급 · 혼합형 · 1주 이내

기업이 원하는 과정 형태 — 즉시 실무 적용(75%) 단기 집중형

5%

채용 시 '교육 이수 경험' 중시

1위는 소통·태도 45% — 이수증만으론 부족, B-Badge 공신력·프로젝트(PBL) 평가 필요

교육과정 공동 개발 시 참여 가능한 방식 (n=20, 복수)

현장실습 장소·기회 제공 60%

교육비 분담 55%

현직자 강사 파견 40%

이수자 채용 우선 연계 3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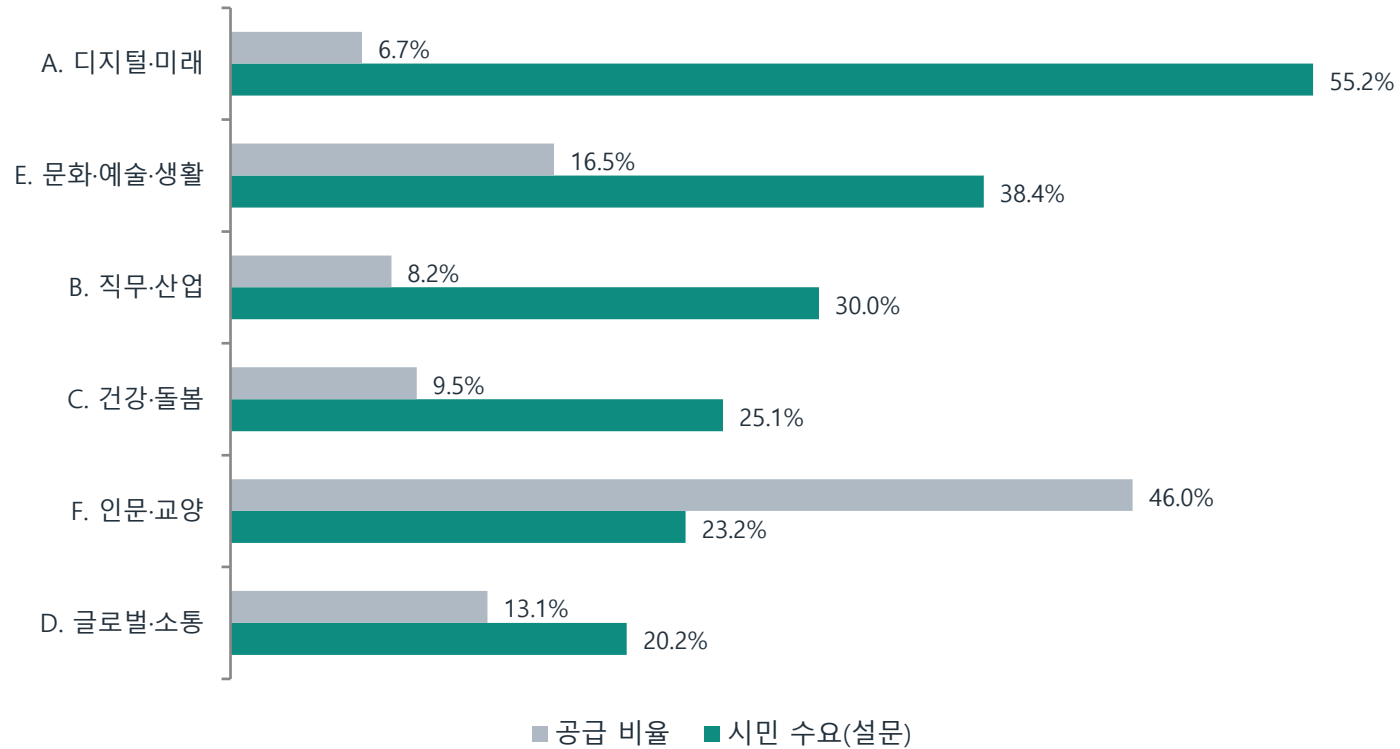
→ 취업 연계·PBL 과정의 실제 파트너 확보 가능성 실증

삼자 교차 검증 A역량군: 재직자 60.5% · 일반시민 39.2% · 기업 85% — 세 관점 모두 최상위 → 디지털·AI 과정 최우선 개발 확정

공급-수요 갭 — 시민이 원하는 것과 공급이 정반대



시민 수요(설문 1+2순위 합산) vs 실제 공급 비율



A. 디지털·미래

수요 1위 55.2% vs 공급 최저 6.7%

최대 괴리 — 최우선 신설 (HR도 85%)

F. 인문·교양

공급 1위 46.0% vs 수요 23.2%

역방향 과잉 — 선별 정비

B. 직무·산업

수요 30.0% · HR 신입 부족 1위 85%

심화(STEP 2) 집중 신설

E. 문화·예술

수요 38.4%(일반시민 1위) · 기초 편중

품질 정비 + 심화 경로 신설

수요 = 시민 설문 1+2순위 합산 선택 비율(유효 n=203) · 공급 = 43개 기관 6,080건 DB(2026. 4.) · 갭 판정은 결과보고서 VI장(공식 통계 교차 검토) 기준

핵심 진단 — 부산 평생교육 공급 구조의 '이중 불균형'

① 역량군 간 불균형

6.9배

F. 인문·시민·교양 46.0% vs A. 디지털·미래 6.7%

수요 강도와 정반대 방향의 공급 배분

② 단계(STEP) 간 불균형

20배

STEP 1 기초 84.9% vs STEP 3 전문 4.2%

전 역량군 공통의 기초 편향 — 성장 경로 단절

B-Ladder 교육과정 개발의 핵심 방향 = ① 디지털·직무 역량군 확대 + ② STEP 2~3 심화 과정 신설 + ③ F역량군 선별 정비

개발 우선순위와 방향 — 분석의 결론



개발 우선순위 (갭 분석 기준)

1순위	A. 디지털·미래 — STEP 1~3 전체 신설 수요 1위 55.2%(재직자 60.5%) × 공급 최저 6.7%
1순위	A+B 융합 — AI×직무 STEP 2~3 신설 부산 산업구조·수요 트렌드 부합
2순위	B. 직무·산업 — STEP 2 심화 집중 신설 HR 신입 부족 1위(85%), 공급은 8.2%
3순위	E. 구조 개편 · C. STEP 2 보강 일반시민 수요 1위(52.9%) 대응 · 고령화 대비
4순위	D. AI+어학 재편 · F. 정비+ESG 편입 과잉 정비 후 신수요 과정 편입

개발 4대 원칙 · 인증 체계

① 갭 우선	공급-수요 갭 최대 영역부터 개발
② 단계 연속성	STEP 1→2→3 성장 경로 보장
③ 접근성 설계	혼합·야간·모듈형 기본 탑재
④ AI 횡단 융합	전 역량군 심화 과정에 AI 접목
B-Badge	6역량군 × 3등급 = 18종 · 공동심의 발급

상세 설계는 결과보고서 VII·VIII장 ▶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이어지는 발표 ② 「추진 과제 ① B-Ladder 교과과정 개발」에서 다룹니다

정책 제언 — 함께 만들어야 할 4가지 제도 기반



무엇을 개발할지는 앞 장(우선순위)에서 결론 — 여기서는 그것을 지속가능하게 만들 제도·협력 기반을 제언합니다

1

공동심의위원회 조기 구성

과정 개설 전 출범 — B-Badge 심의와 기관 간 분류체계 논의·재검증을 주관

2

플랫폼 데이터 환류 체계

B-LiFE 이수·배지 데이터로 공급-수요 갭을 연 1회 재점검 — 데이터 기반 개편 상시화

3

초광역(부울경) 상호 인정

울산·경남 유사 인증 체계와의 연계를 설계 초기부터 반영 — RISE 3단계 목표와 정합

4

마이크로디그리 · RPL 제도화

B-Badge의 소단위 전공과정 공식화(학칙 개정)와 학점 인정(RPL) 기준 수립 병행

※ 제언 1-4는 맷음의 관계기관 협력 요청과 직접 연결 — 공동심의위 참여 · 학칙 개정 협의

분석의 한계와 후속 과제 — 다음 단계로 가는 다리



본 분석의 한계 (정직한 명기)

- 설문 표본의 한계 — 시민 유효 203명($\pm 6.9\%$ p)·HR 20명으로 통계적 대표성에 한계, 수요 방향 확인 목적으로 활용
- 강좌 분류의 해석 여지 — 강좌명 기반 1차 분류. 기관 검증 절차로 정확도 보완 필요
- 실제 교과목·콘텐츠 미제작 — 본 과업은 방향·기준 수립까지가 범위
- B-Badge 공식 제도화 미확정 — MOU·학칙 개정은 후속 과제

5대 후속 과제

- 1 컨소시엄 MOU 체결·운영 세칙 수립 (전환 조항 사전 반영)
- 2 학칙 개정 표준 모델 개발·선도 대학 추진 (~2027)
- 3 D·E·F역량군 별도 제도화 경로 연구 (학점은행제·자격 연계)
- 4 RPL(선행학습인정) 기준 마련 — 배지의 학점 연계
- 5 수요조사 정례화 — 플랫폼 이수 데이터와 연계해 연 1회 갭 재점검

맺음말

분절된 강좌의 집합에서, 경로(Pathway) 중심의 역량 개발 체계로

이번 조사로 공급-수요 갭이 처음 확인되었고, 시민 203명·기업 20곳의 설문이 그 방향을 실증했습니다.
이 기반 위에서 이어지는 발표 — 교과과정 개발(과제 ①)과 통합 플랫폼 구축(과제 ②)이 출발합니다.

강좌 데이터 공유·검증

43개 기관 1:1 분류 검증 협조

공동심의위원회 참여

B-Badge 인증의 신뢰성 확보

B-Ladder 과정 공동 기획

갭 영역의 역할 분담 논의

